

사회

‘비료값 답합’ 집단 손해소송

광주·전남 농민 등 전국 2만7600여명

“부당이익 돌려달라” 남해화학 등 13개 업체 상대

광주·전남 6300여명 등 전국 농민 2만7600여명이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들을 상대로 비료 가격 답합에 따른 부당이익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업경영인 소송인단 2만7601명(11일 기준)이 13개 비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1인당 3만원씩 보상에 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

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한농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 단체 등에서도 참여하는 등 농업계에서 낸 소송 가운데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소송인단에는 광주 69명·전남 6255명을 비롯해 충남 6883명·경북 4900명·경남 4152명 등이 참여했다. 한농연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소송인단은 15일 현재 3만146명으로 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 입찰에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총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한농 169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KG)케미칼 41억원, 풍농 36억원 등이다.

재판은 앞으로 업체들의 답변서와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본격화

된다.

한농연은 공정거래위의 비료 가격 답합 발표이후 부당이익을 환수받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한농연 관계자는 “FTA 체결과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업체들의 답합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비료 업체들의 부당 이익을 현장 농업인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뉴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내일 정전 훈련

전력 위기상황 대비

소방방재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대규모 정전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오후 2시 정각에 사이렌으로 전력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KBS 라디오 등 11개 라디오 공동 실험방송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국민은 사이렌이 울리면 각 가정이나 상가, 기업체 단위로 절전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철도·항공·선박은 정상 운행된다. 병원도 정상 진료하며 여수세계엑스포가 진행 중인 여수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연습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05시 43분 달질 20시 14분

반가운 소나기

대체로 맑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	구분	시간	기온
광주	맑음	19/30°C	
	맑음	19/27°C	
목포	맑음	20/25°C	
	맑음	18/30°C	
여수	맑음	19/28°C	
	맑음	19/28°C	
완도	맑음	19/28°C	
	맑음	19/28°C	
강진	맑음	19/28°C	
	맑음	19/28°C	
해남	맑음	19/28°C	
	맑음	19/28°C	
장흥	맑음	20/29°C	
	맑음	20/29°C	
영광	맑음	19/27°C	
	맑음	20/30°C	
진도	맑음	19/29°C	
	맑음	18/29°C	
남원	맑음	18/29°C	
	맑음	19/24°C	
흑산도	맑음	19/24°C	
	맑음	19/24°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지역	방향	파고	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경고
	남서~북	0.5~1.5m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높음
	남서~북	1.0~2.0m	높음

〈오후〉 바다

지역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02:44	08:02
	서~북서	0.5~1.5m	14:32	19:5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9:18	03:23
	서~북서	0.5~1.5m	21:54	15:2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9/30	20/31	20/31	20/30	20/29	20/28

시, 택시 파업 대비 특별대책 마련

광주 택시부제 일시 해제

지하철 1시까지 연장운행

광주시가 전국 택시업계의 파업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인 3471대와 개인 4748대 등 광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8219대로, 이 가운데 1일 운행 대수는 6057대(법인 2892대·개인 3165대)다. 이 중 파업이 예정된 20일에 운행을 중단하는 차량은 2983대로 예상된다.

시는 택시부제를 일시 해제해 6051대를 모두 운행토록 1차적 조치했으며, 지하철은 21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시내 버스 94개 노선 930여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차량 34대를 추가 투입해 새벽 5시40분부터 자정

까지 운행하고, 관공서·학교·기업체 등에서 시행하는 요일제를 일시해제, 카풀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기관별로 자율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택시업계에 집회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급급적 택시운행을 중단하지 않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지난 15일 협조공문을 시행하기도 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전국적으로 ‘LPG 가격 안정화, 연료 다변화, 대중교통 법제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0일 0시부터 하루 동안 택시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NBC 파업100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2012 6 19. 11:00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
공정방송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광주지부 조합원 50여명은 19일 파업 100일을 맞아 광주 시 동구 광주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시장 퇴진과 언론자유, 공정방송’을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 무조건 재건축 대상 아니다”

대법원 심판 확정

준공 후 20년이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모(50)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

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 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를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대시장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

마음은 열어도 안보신고는 철저히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짐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심장이 곧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해(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화해(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은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 2) 땀을 흘림
-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놀리거나 졸리는 감각)
-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느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아무런 부담 없이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